



파도가 빛은 지질 이야기

형제도



수직절리 따라
갈라져 있는 모습이
사이좋은 형제같이
형제도라 부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
형제도

작은 지질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지질 현상을
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인 '형제도'를 선정했다.

* 보전가치가 높아 건축·인공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동·식물의 포획채취, 취사·야영 등 일부 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인도서

여수반도 남쪽에 있는 금오도의 동측 해안가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형제도는 높이 약 30m, 면적은 약 6,017㎡ 규모로 금오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섬 가운데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형과 아우가 사이좋게 마주 보고 있는 듯한 형상이라 '형제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형제도는 오랜 기간 파도에 쓸리고 깎여 생긴 해식애와 수직절리 및 해식동굴,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다각형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벌집 모양의 바위 표면 등 다양한 지형과 지질 경관을 지니고 있다.

섬 대부분이 딱딱한 바위로 이루어진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에는 곰솔과 다정금나무, 사철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해국, 참나리, 밀사초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편, 2023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왜가리, 노랑발도요, 바다직박구리와 육상 포유류인 수달의 배설물이 관찰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도서로 확인되었다.

형제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여수관광문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